

# 코로나19도 꺾을 수 없는 광산구민 주민자치 열망

### 9개동 주민자치회 온라인 총회 2만7000명 참여...마을의제 우선 순위 결정 김삼호 청장 "주민 직접 발굴한 현안 지원 최선"...타지역 모범사례로 꼽아

광주 광산구 주민자치회가 코로나19 감염사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을 현안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9개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정기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현안 문제를 논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오프라인 모임을 축소하고, 온라인 총회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은남동 주민자치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우산동, 수완동 자치회 등도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회의는 광산구의 소통 앱(app) '광산ON'을 통해 마을의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광산구 유튜브로 주민총회를 생중계한 뒤 실시간 댓글로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9개동에서 제안된 48개 마을의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에 광산구민 2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광산구에서 예상한 인구 1% 이상

참여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특히 첨단2동은 인구의 약 16%인 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마을 일에 대한 주민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이 같은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주민총회를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산구 최초의 온라인 주민총회를 기획한 것도 첨단2동이다.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동 주요 거점 5개 상점 스크린에 주민총회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넓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첨단2동 외에 눈에 띄는 또 다른 주민총회를 살펴보면, 올해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첫 주민총회를 마친 첨단1동이다. 첨단1동 마을의제는 공원과 녹지, 그리고 쉽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총회에서는 '1등 공원 둘레길 환경개선'이 우선 순위 의제로 선정됐다. 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결정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을 위한 사업들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가동 주민총회는 신가지구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은혜나무길의 추억을 담아내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산동 주민총회도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제안돼 추진된 '송우초-광산중 LED벽화길 사업'을 확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가운데)이 최근 2020 신창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마을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산구 제공>

하고 활용하는 '햇데햇데 우산동' 사업을 마을의제 2순위로 선정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우산동 주민들은 마을의제 실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벽화길을 마을 랜드마크로 발전 시키겠다는 의욕도 보이고 있다.

수완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로 만드는 수완의 미래'를 주제로 선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의 1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주민들은 현재의 수완동을 진단하고 마을의제를 선정 발표한 뒤 총회에

서 수완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귀중한 마을의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주민 누구나 온라인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톨'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지역경제도 살리고...추석 명절도 준비하고

### 광산구, 우체국쇼핑몰서 최대 44% 지역 우수제품 특별 할인 행사

면, 15~44%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말 기준 광산브랜드 관에는 24개 업체, 119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입점 품목은 가공식품을 비롯한 여행용품, 차 세트와 연료 첨가제 등 다양하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21종도 구비돼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게는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가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가격에 지역기업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발족식 모습.

## 광산경제백신회의, 소상공인 업체 냉방비 지원

### 편당모금액으로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 최고 10만원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냉방비를 지원한다.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 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산경제 활력 특강 등 9개의 '광산백신 시리즈' 사업을 해온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원 시리즈 10탄으로 냉방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냉방비는 일반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

용 20kw이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계약을 한 등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며, 업소당 최고 1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9-10월 중 납기일에 고지된 한전 전기료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냉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투게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서 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광주송정도서관 독서 문화 확산 상호 협약 체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송정도서관은 지난 8일 '지하철 도서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에게 생활 속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송정도서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매년 중고도서 1000여권을 공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탑승하는 역에서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읽은 뒤 내리는 역에서 반납하는 '지하철 책 사량방'도 각 역마다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추석 화재 예방·코로나 확산 방지 광주소방, 10월 5일까지 안전지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10월5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해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178곳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소방안전 관계자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 등 화재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소방서는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해 원인 분석과 관리방법 등을 비대면으로 지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는 선별해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공중·개방화장실 사회적 거리두기 광주시, 홍보물 부착 등 실천 유도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에 따라 화장실에서도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공중·개방화장실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홍보물을 붙여 시민의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세부지침을 따르며, 공중화장실에서는 ▲ 마스크착용하기 ▲ 출실 때 2m 이상 간격 유지하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 30초 이상 손씻기 ▲ 소변기 한 칸 띄어 사용하기 ▲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이용 자제 등 실천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